

ProPak China 2001

김영순/ 한국포장기계협회 상근부회장

세계경제의 침체 그늘 속에서 중국만이 연간 8%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국가 통계국은 최근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7.8%를 기록하였으며 오는 2005년까지 7%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 11월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중국경제는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초고속 성장은 꾸준한 수출 증가와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경제가 미국의 IT(정보기술)산업 침체로 고전하는데 비해 중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수출이 어려워도 거대한 내수시장이 뒤를 받쳐 주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올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작년동기에 비해 8.8% 증가했다.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수출입을 합친 대외 무역액은 총 241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1.3%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수출액(1,245억달러)은 작년 대비 8.8% 증가했고 수입액(1,164억달러)은 14% 늘어났다.

강력한 수출 엔진은 역시 제조업이다. 중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하는 세계최대의 가전제품 생산 기지로 부상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TV의 36%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에어컨과 세탁기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각각 50%와 24%에 달한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값싼 인건비로 무장한 중국 제조업은 요즘 생산성까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제조업체들은 생산거점을 중국으로 이미 많이 옮겼고 또 옮기는 중이다.

일본의 마쓰시다, 도시바, 산요와 한국의 삼성 전자, LG전자등 유수한 국내 기업들이 그 생산거점을 옮기고 있다.

고도성장의 또 다른 엔진은 급증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중국에 대한 투자는 334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3%가 늘어난 액수라 한다. 지금까지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 총 투자액(누계)은 7101억달러.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37만6300여개에 달한다. 전세계 신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투자를 중국이 거의 독식하는 셈인 것 같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몰리



▲ ProPak China 2001 한국포장기계협회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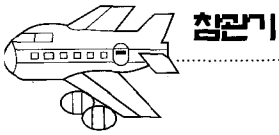
는 이유는 역시 13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중국 시장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조1,206억 위안이 들어가는 서부대계획을 발표, 세계의 관심을 모은바 있다.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SOC(사회간접자본)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고용증대와 더불어 풍요로운 중국 경제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중국경제와 시장은 1978년부터 자유화 개방이 그 발판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20여 년 간 경제성장이 눈부시게 발전해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동부연안 지역이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와 지고 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그 성장 속도는 너무나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포장기계 및 식품기계산업은 연간 20~3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뒤떨어진 포장방법과 보관방법 그리고 포장기

술 포장재료로 인하여 많은 제품들이 손실되고 그 상품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 정부 당국은 포장분야의 기계화, 자동화 및 현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대형 슈퍼마켓과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으로 급격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과 소비패턴 그리고 구매요구가 보다 미려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포장방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포장기계협회는 KOTRA 주관 하에 IPR과 협력하여 2001년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ProPak China 2001'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총 19개 업체 171m²(19부스)를 참가하여 한국 포장기계산업의 그 위상을 중국시장과 세계에 과시하고 우리 제품의 기술과 노하우를 세계에 알



리고 우리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ProPak China 2001' 전시회의 규모는 총 전시면적 약 15,800㎡, 참가 규모로는 23개국 314개업체로 중국 포장기계 전시회로는 큰 규모의 전시회이었으며 4일간의 총 관람객은 9175명으로 전년 8,135명 대비 1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상하이에서의 참관인이 5,194명(56.6%) 상하이 이외지역 참관인은 3,408명(37.1%), 그 외 VIP참관이 573명(6.3%)으로 집계되었다.

한국포장기계협회는 포장기계분야의 중국진출이 어느 국가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998년 광주우 포장기계전시회, 1999년 상해포장기

계전시회 2000년도 역시 상하이전시회를 한국관으로 구성하여 참여한 바 있으며 작년전시의 한국관에는 10개사 126㎡(14부스)의 규모로 참가한 결과 중국시장 진출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중국 시장 진출(기계 판매와 중국내 생산기지 거점확보)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중국 베이징에 한국포장기계협회 베이징 사무소를 개설하고 소장을 포함한 4명의 현지 직원이 포장기계 판매활동과 기술제휴 및 현지합작사 설립모색 등 중국 현지의 사전 활동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때를 같이하여 개최된 본 'ProPak China 2001' 전시회는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다.



▲ ProPak China 2001 전시장 내부

'ProPak China 2001' 전시회의 특징으로는 과거 우리 협회가 참가한 전시회에 비하여 중국을 제외한 외국 기업의 참가가 눈에 띄게 많았다.

한국을 비롯한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미국, 체코 등이 참가하여 Small Inter Pack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며 한국 포장기계도 이제는 세계시장에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꼈으며 특히 중국인의 한국 기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일부 회사의 기계는 현지에서 상담되어 전부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소 아쉬웠던 것은 이처럼 판매된 기계를 높은 관세와 제비용이 너무 높아 현지 판매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다만 중국의 WTO가입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4일간의 전시기간 중 저마다 자기 기계를 선보였지만 그중 일본의 Shikoku사와 Tetra Pak사의 시간당 6500개 능력의 우유팩(250, 500, 1000ml)충전 시스템의 불꽃튀기는 경쟁은 가히 불만하였으며 한국관에는 아시아포장기계, 을성정공, 한국뉴메텍, 화성기계, 세원포장기계, 한얼기계, 세진테크, 가성포장기계, 신보성기업 등의 전시품이 참관인의 눈길을 끌었으며 그 외 세종파마텍, (주)우정, 도래미정밀, 인산기업, 앞성 등도 참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협회 홍보관에 카다로그를 전시한 유림상사, 대덕밴드, JKA 등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든 참가사가 대리점 계약 상담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협회관을 운용함

으로써 협회와 베이징사무소의 홍보와 특히 2002년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COEX에서 개최될 제7회 2002 국제포장공정포장기자재전의 홍보로 많은 중국인의 관심을 모았으며 특히 상하이 포장기계협회장 초청으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상호 유대강화와 양국간의 기술제휴 등 협력방안의 향후검토와 양 협회 주최의 포장기계전시회의 상호 참가와 참관을 시행키로 약속된 것은 큰 성과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유형무형의 큰 성과는 우리 협회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5개 지역 중 중국 지역에 대한 꾸준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는 1998년 광조우 전시회를 시작으로 1999년과 2000년도에 연이은 상하이 전시회에 이어 4번째로 참가한 행사로 꾸준한 중국시장의 관심과 금년 4월의 베이징 사무소 개소 등의 결과로 생각되어 앞으로도 계속 중국시장 개척과 전시회 참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협회가 인터메세항공과 더불어 약 30명의 참관단과 참가단을 모집하는 등 총 100여명의 한국인이 이번 전시회를 방문하여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으나 폭넓은 자료와 중국시장 개척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끝으로 본 전시회를 주최한 Hong Kong Exhibition Services Ltd.의 물샷틈없는 기획과 전시장 운영에 찬사를 보내며 KOTRA 상하이 공관 직원의 전시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본 전시회 한국 Agency인 IPR의 현지 출장 직원의 세심하고도 적극적인 뒷받침은 성공적인 전시의 원동력이 되었다. ☐